

과학아카데미 23·24일 '무료과학실험교실'



방과 후 STEAM 과학교육전문 사회적기업인 (주)과학아카데미 광주지사(사장 원준희)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북구 드림스타트에서 '무료과학실험교실'을 진행했다.

한국농업경영인 강진군연합 14대 회장 취임



한국농업경영인 강진군연합회(회장 조명연)는 최근 강진군 농업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김치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윤 군의회 부의장 등 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정기총회' 및 '14대 조명연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북구 참사랑번영회, 소외이웃에 장학금



광주시 북구 건국동 참사랑번영회(회장 임대형)는 최근 생활이 어려운 이웃 40세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명에게 백미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 북구청 제공)

언론중재위 대성여고서 '인턴십 프로그램'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최근 대성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한글 가르치며 다문화 언어 배워요”

북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국어 지도사 오현임 씨

2010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로 시집을 온 이주 여성 강세나(24)씨에게는 3년 동안 알고 지낸 한국인 '언니'가 있다. 그녀를 만나면 강씨는 수다쟁이가 된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부터 남편과 자식사랑까지 이야기 보따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녀의 '언니'는 다문화인 북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국어지도사 오현임(여·45)씨. 오씨는 "처음엔 난만 밀푼밀푼 쳐다보더니, 이제 아줌마처럼 수다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놓네요. 다 큰 자식 보는 기분이에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2008년 본보의 기사를 통해 오씨는 광주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처음 시도하는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를 알게 됐다. 다문화 가정을 교육하는 친구로 인연에 관심이 있던 터였다. 결혼 후 출근 가정을 지켰던 그녀는 주저없이 '한국어지도사'를 선택했다. 걱정하는 가족에게는 "남은 시간동안 좋은 일을 하게 해달라"며 설득했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없던 그녀는 시작할 때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일주일에 16시간씩 4명의 이주여성들을 교육하는데, 자음을 먼저 가르쳐야 할지, 모음을 먼저 가르쳐야 할지부터 어려웠

어요. 말도 안통하니깐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서 갈팡질팡했죠."

그만둘까도 고민했었다는 오씨에게 다시금 열정을 불어넣어준 건 다문화인 그녀의 학생들이었다. 홀로 한국을 찾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될 수 있잖아요. '반아쓰기 하세요'라는 말 정도는 그 나라 언어로 하려고 공부를 했죠. 제가 자기네 말을 물어보고 한 문장이라도 직접 말해주면 자국을 받는 학생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구요."

그때부터 오씨는 이주여성에게 실생활과 관련된 말들을 틈틈이 적어나갔다. 그녀의 노트엔 베트남, 중국, 태국어로 말에 한글발음과 뜻이 빼곡히 써있었다. 그러다보니 공부가 재밌어져서, 베트남, 중국어는 책까지 사서 공부했다. 이젠 이주여성들과 간단한 의사소통은 무리없이 할만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어지도사 활동을 통해 그녀의 인생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졌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한국어지도사는 이주여성에게 한글은 물론 '문화 전령사'로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0년 광주시립박물관을 찾은 이주여성들과 오현임(오른쪽 두번째)씨.

중요하다고 여긴 그녀는 과감히 자녀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했다. 대신 자녀 옆에서 함께 공부를 했다. 그 덕분인지 고3, 고1 인 오씨의 두 자녀의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도 작년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서로를 의지하며 공부를 한 탓에 수업이 끝나도 언니처럼 잘 따르나봐요" 오씨는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이자 학생으로 이주여성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것이라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검팔이 출신 성악가' 대학생 됐다

최성봉씨 내달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과 입학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돌려 드릴 차례입니다.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기획·제작자가 되고 싶어요."

'검팔이 출신 성악가'로 유명한 최성봉(23)씨. 최씨는 내달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는 "음악을 매개로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세상과 교류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결정했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고 사이버대를 택했다"고 23일 말했다.

2011년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태런트'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한 그는 기구한 인생역정으로 당시 '한국의 폴 모츠라' 불리며 화제를 모

았다.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그는 구타를 견디다 못해 5살 때 뛰쳐나왔다. 이후 10여년간 대전 유충가에서 검팔이와 막노동 등으로 연명했다. 14살이 돼서야 독학으로 한글을 익혔고 검정고시로 초·중 과정을 마쳤다. 성악을 배우고 싶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았던 음악 연습실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박정수(38)씨를 만났고 박씨의 도움으로 대전예술고 성악과에 입학했다.

레슨비를 벌기 위해 밤샘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던 그는 결국 음악을 포기, 입용직을 전전하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지금은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내외를 오가며 공연을 하고 병원, 학교, 군부대



등에서 강연도 한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 미술, 전시 등을 두루 배우 소외계층이나 문화예술 분야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며 "K팝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세계를 무대 삼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광군 신광군 주무관 대통령 표창

영광군 투자유치와 신광군(49) 주무관이 최근 '제5회 섬김이 대상 시상식'에서 규제개선이나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섬김이 대상'은 지난 2008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으며, 고질적인 민원·국민불편·기업애로를 해결하거나 투자유치 등에 뛰어난 역할을 한 일선 공직자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 기업 등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신 주무관은 지난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면서 전기자동차 및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92개 기업을 유치, 2조4801억원의 투자협약금 및 2만6598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낸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신 주무관은 "투자유치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고성석 전 여주시 국장 녹조근정 훈장

박람회 성공개최...179명 포상

고성석 전 여주시 건설교통국장(사진)이 2012 여주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고 전 국장은 "박람회 성공개최 주역들이여주시 공무원, 자원봉사자,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30만 여주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 여주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높이 사 여주시에 단체표창을 한 것은 물론 이경우 교통행정과장 등 7명에게 훈장, 장채민 문화



179명에게 포상했다.

다음은 여주시 및 민간인 훈포장자 명단.

- ◇온탑산업훈장 ▲김대성(여주시 박람회 준비위 위원장) ▲류중구(엑스포시민포럼 운영위원장)
- ◇녹조근정훈장 ▲고성석(여주시 건설교통국

예술과장 등 4명에게 포상, 김문환 도시계획과 직원 등 26명에게 대통령 표창, 김승자 총무과 직원 등 29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김도규 공보담당관실 직원 등 112명에게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등 유공자

장-전남도 전출)▲이경우(교통행정과장)▲김재일(상황대책과장)▲장계남(조직위 과장)▲심정우(호남대 겸임교수)

◇근정포장 ▲박정수(여주시 자원봉사과장)▲장채민(문화예술과장)▲이준형(총무과 조직위 과장)▲조영은(총무과 조직위과장)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인사

◆진도군

- ◇5급 승진 의결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병애
- ◇4급 전보 ▲세무회계과장 운영일
- ◇5급 전보 ▲투자마케팅과장 김재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을 ▲진도개사업소장 홍성진 ▲진도항개발사업소장 기창우 ▲의산면장 김영희 ▲임회면장 이원석 ▲지산면장 이재식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대 名博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이 오는 25일 목포해양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대학은 이 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탁월한 육·해상 치안업무와 애국심으로 국가법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복 포항 출신인 이 청장은 1985년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경기, 서울 등의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 8일 해양경찰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한편, 목포해양대는 25일 오전 11시 학내 체육관에서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한다. 박사 6명, 석사 20명, 학사 415명을 배출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고순규·차영초씨 아들 경윤군 이의정(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조영수씨 딸 서영양=26일(토) 오전 11시 50분 홀리데이인호텔 3층 로즈홀.

▲김삼호·박현숙씨 장남 석형군 김용찬(전남도교육청 사무관)·조은희씨 차녀 은지양=27일(일) 오후 1시 광주 피엔제이웨딩홀 2층 주얼리홀.

동창동문회

▲송의고등학교 총동문회장(회장 윤재갑 해군소장(재독) 12회) 신년하례=25일(금)오후 7시 삼영예식장(소태동) 011-9779-2850.

▲북성중 26회 동창회(회장 김성근) 신년회=25일(금) 오후 7시 금다연한정식 062-385-0002.

▲북성중 27회 동창회(회장 김연중) 신년회=26일(토) 오후 6시 영미오리탕(상무) 062-362-5252.

종친회

▲능성구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구연수) 월례회 및 신년 단배식=26일(토) 오전 11시 벽오동보리밥식당(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062-381-0019.

▲경주김씨광주 전남 종친회 정기총회=26일(토) 오전 11시 인애동산 회의실(남구 청소년 수련관 인근) 061-672-9311, 010-6455-6296.

알림

▲사회복지법인 수안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

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술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프로 체형=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네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모집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분=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과출소 부근 010-8072-2589.

▲광주FC 축구회원=자영업·직장인 20~50대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헌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광주 시시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의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만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람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함-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 062-266-6321~2.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뜸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부음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親 正 家 (여/72세)	故 長 子 正 家 (여/82세)
子/子孫: 정경환/김현정, 정은/이민진 女/女孫: 정미영/류오연, 미애/박상규 •복심: 201호 •장자: 영락공원	子/子孫: 조성웅/박종미, 성민/김혜숙 女/女孫: 조성희/고조현, 성숙/박재순, 성현/최순 •복심: 301호 •장자: 영락공원
故 正 家 國 人 (남/73세)	故 次 子 正 家 (남/101세)
子: 정대중 女/女孫: 정영호/서정호, 미라, 세나/김민호 •복심: 401호 •장자: 영락공원	子/子孫: 박종호/장혜경 •복심: 402호 •장자: 영락공원

마음까지 원한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